

헤-겔 辨證法과 맑스 辨證法과의 關係 (五)

헤-겔과 唯物辨證法- (續)

쎬-쎬링

金亨後

그곳에 아래와 가티 말하면 『뿌레하노프[프레하노프]』는 正當한 것이다. 말하되 헤-겔은 存在와 思惟와 새 이의 矛盾을 解決치 안코 이 兩者의 關係의 一方面을 排除하고 그리고 그것에 依하여 自己의 辨證法的 方法을 背反 하얏스며, 또 抽象的인 一元論 或은 同一性의 見地에 서잇다고 論理學의 領域에 드리가기 前에 우리는 認識論의 問題 즉 客觀性 存在에 對한 우리들의 關係를 解決치 안으면 아니된다. 헤-겔은 이 問題에 專門的 研究를 傾注하얏다. 그것은 論理學의 序說인 『精神의 現象學』이다. 『精神의 現象學』은 對象에 對한 思惟의 關係의 問題를 全面的으로 研究한 것이다. 本書는 思惟와 存在와의 同一性으로부터 成立되는 絶對的 知識의 見地에 到達하기 爲하여 對象에 對한 思惟의 모든 形式을 歴史的, 體系的으로 考察하얏다. 헤-겔은 이 結果를 達成한 後에 思想과 對象의 同一한 地盤에 서서 自己의 論理學을 建設한 것이다. 知識의 便이 발서 論理學을 豫想하고 잇는 것은 明白한 事理 이얏다. 論理學은 認識論의 前提가 되며 認識論은 論理學을 豫想하고 잇섯다. 一見할 쎬 이곳에는 矛盾이 잇는 것 가티 보히나, 그 實이 矛盾은 後段에서 알리워질 것과 가티 잘 解決되며 또 克服된다.

그런데 이것에 關聯하야서 우리에게 興味잇는 것은 存在와 思惟의 相關의 問題이다. 이리하야 헤-겔은 思想과 對象을 對立하는 것에 依하여 認識論의 問題를 解決하얏다.

헤-겔은 『精神의 現象學』에 잇서는 歴史的 土臺에 基하야 思想과 對象의 運動을 描出하얏스며 對象에 對한 思想의 勝利에 依하여 解決되는 兩者의 鬪爭을 描出하얏다. 思想은 對象을 自己의 內容에 轉化식힘에 依하여 對象을 制裁한다. 헤-겔은 말하되 『나의 精神의 現象學에 잇서서는 對象에의 最初의 直接的 對立으로부터 絶對的 知識에 到達하기까지의 意識運動을 描出하얏다.

그 道行은 『客觀에 對한』 意識 關係의 모든 形式을 通過한다. 그리하여 그 結果로서 『科學의 概念』을 얻은 것이다.』 임이 論理學은 經驗의 領域으로부터 빌려와스며 內容으로부터 解放된 純粹思想을 對論理學 즉 眞正, 正確한 科學에 先行한다. 純粹科學은 人間 意識의 史的 發展의 一定한 階級에 잇서서만 發生한다. 그것타고 하면 『論理的』으로선 思想은 經驗에 先行한다. 왜 그러나 하면 表象 그것은 헤-겔 見地로부터 보면 思想의 產出임으로서이다. 『...思惟에 依하여 產出된 人間的 意識의 內容은 처음에 思想이란 形態를 가지고 나타나지 안코 感情-直觀-表象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난다. 즉 形式으로서의 思惟란 것은 다른 諸形式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意識의 여러 가지 形式의 根據에는 同一한 內容이 □在하다. 『우리의 意識 內容은 그것이 如何한 種類이든지 感情-直觀-想像-表象-目的-義務 等等으로서 規定되며 또 思想 及 概念으로 規定되여지는 것이다.